뇌성마비 장애인 무료 치료 나서

포천중문의과대학 안강 교수 16일부터

포천중문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남 차병원 만선통증센터 소장인 안강 교수가 포천시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8월10일 포천시청에서 1차로 10세이상 20세 미만 뇌성마비 장애인 11명과 상담을 실시해 그 중 1차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8명을 선정해 16일부터 무료 치료에 들어갔다.

안 교수는 "뇌성마비 장애인은 대부분 두뇌는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응도가 매우 높은 질병"이라며 "의료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료법은 신경, 근육, 근막, 인대 등의 유착부위나 두꺼워진 인대, 신경이나 신경절 주위부를 안강식 바늘을 이용하여 해제하는 '신경가지 복원술' 또는 '신경가지 및 근막 유착 박리술'이다.

이 방법은 안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수술을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술로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에서도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강 교수는 현재 강남 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소장이면서 EBS 지식채널 고품격 메디컬 다큐멘터리 '명의'에 출연해 강의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만성통증 치료 전문가로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전문의사로 알려져 있다.

포천중문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남 차병원 만선통증센터 소장인 안강 교수가 포천시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도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운영

포천시농업기술센터, 포도농업 홋가이도 견학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는 시의 포도농업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도 신학기 한국농업대학(학장 김양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에 의뢰해 최고경영자 과정에 과수과 포도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입학식 이후 과대표 김선필씨(포천시 내촌면, 고창촌 농원 대표)를 주축으로 매주 수요일 6시간씩 일반교양, 전산 및 전공 포도 교과에 대한 강의와 견학,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6월 20일 1학기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3박4일)는 전공주임 이영철 교수의 인솔로 과정생 21명이 일본에서 캠벨얼리 재배와 가공을 통해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홋가이도를 시찰하고 왔다.

현지에서 캠벨얼리, 델라웨어, 버팔로 재배농가를 방문해 재배방법과 유통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토의했고 포도주 가공공장(winery)과 판매장, 포도주 전시장(wine gallery), 삿포로 중앙 도매시장과 북해도 농업시험장 등을 견학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포도수확기와 겹치지만 9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들은 강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남은 1년 과정을 잘 마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의 포도농업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도 신학기 한국농업대학에 의뢰해 최고경영자 과정에 과수과 포도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희대 치과병원 매년 무료진료봉사

영북농협 3층 회관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포천 영북농협(조합장 이상용)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원장 우이형 박사)은 8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영북농협 3층 회관에서 치과 무료진료 봉사를 펼쳤다.

영북농협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경희대학교 치과병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치과 무료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

올 여름에도 30여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180여명의 조합원과 노인, 유아원생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상용 조합장과 우이형 원장은 "신청 안한 환자들이 찾아왔다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8년째가 되는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 주민 모두에게 진료기회가 돌아가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영북농협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8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영북농협 3층 회관에서 치과 무료진료 봉사를 펼쳤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관조(觀照)와 관여(關與) 59

관조는 대상의 본질을 냉정히 응시하는 것 관여는 어떤 일에 참여하여 주관을 싣는다는 것

관조(觀照)란 말이 있고 관여(關與)란 말이 있다. 비슷하게 들리나 실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말이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人生)을 관조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政治)에 관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때 관여한다는 것은 참견(參見)한다는 것이다. 관계(關係)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참여하여 주관(主觀)을 싣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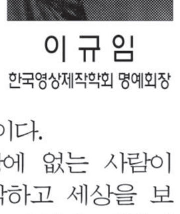
반대로 관조란 주관을 떠나서 대상의 본질(本質)을 냉정히 응시(凝視)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관조하되 가급적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인생의 배움 길에서 관조는 도움을 주나 관여는 자칫 시비(是非)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상(對象)이란 사람[人]일 수도 있고 사회현상(社會現象)일 수도 있고 자연현상(自然現象)일 수도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자연히 그의 장단점(長短點)을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단점(短點)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불쾌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설화(舌禍)에 휩싸이기 쉽다. 굳이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idea)에 대해 말하라. 다음으로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제도(system)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일관성(consistency)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라.

관조한다는 것은 감정(感情)을 싣지 않고 보는 것이다. 주관(主觀)을 싣지 않고 보는 것이다. 관여(關與)하지 않고 보는 것이다. 간섭(干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 간섭이 되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막으면 관여가 되는 것이다. 간섭하거나 관여하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 사물의 본질(本質)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세상의 이치(理致)를 그대로 깨우칠 수 없다.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 나타나는 심리현상(心理現象)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判斷)이 잘못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화(合理化)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자신을 세뇌(洗腦)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貫徹)되지 않거나 뜻대로 안 될 때는 폭력(暴力)도 불사한다.

관여한다는 것은 상대(相對)의 일에 뛰어드는 것이다. 참견하는 것이다. 시비를 거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물론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사람일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상대와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原因)의 반은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이는 것이다.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생각이 이쯤에 이르면 시비는 저절로 가려지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상대(相對)가 달라 보인다. 아! 저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관여(關與)하지 않고 관조(觀照)의 세계에 머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왜 내 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자신의 업보(業報)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왜 나를 이리로 인도(引導)했는가? 왜 이런 시련(試鍊)을 주시는가? 자문하고 자성(自省)해야 한다. 그리고 깨우침을 구해야 한다. 지혜(智慧)를 구해야 한다. 오른 빰을 때리거든 왼 빰도 내밀어라. 항상 곱씹고 곱씹어 볼 일이다. 〈011-9262-4491〉

Essay

옥수수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한 여름 뜨거운 태양아래 두 소녀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파른 비포장 언덕길을 걸어 오르고 있습니다.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에선 연신 땀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숨은 턱에 차서 헉헉거리고 있는 모습이 꽤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군부대의 짚차가 먼지를 날리며 달리다 멈추어 섭니다. 여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운전병이 내려와 차에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고마워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안에는 번쩍번쩍하는 별을 두 개나 달고 있는 군인 아저씨가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소녀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 아저씨의 모자와 어깨에 달린 별이 어찌나 번쩍이는지, 소녀들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가는 곳까지 태워 주신다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이담에 크면 이 아저씨처럼 멋진 군인한테 시집가고 싶어'

두 소녀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회산에서 운천까지 돌아온 소녀들은 달리 보답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배낭 속의 옥수수를 꺼내어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 몇 자루로 그 고마움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네 밭이 있는 외진 산골마을까지 걸어가서 옥수수를 따 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만난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옥수수가 더 맛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은 새벽일이 끝나자마자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댁의 큰어머니께서 오래간만에 저희 집엘 다니러 오셨는데 오늘 떠나신답니다. 가시는 길에 옥수수를 따서 전해드리려고요.

새벽이슬을 머금은 옥수수 줄기는 너무나 싱싱합니다. 저는 제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란 줄기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알맞게 익은 옥수수를 골라 따냅니다.

옥수수는 수염을 보고 익은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처음 자랄 때는 수염이 엷은 베이지 색을 띠면서 자라고, 점차 알이 차기 시작하면 붉은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알이 꽉 차고 먹기 좋게 여물면 수염의 색깔은 갈색을 띠면서 끝 부분이 살짝 마르게 됩니다. 이것을 골라 따내면 딱 먹기 좋게 여물어 맛이 좋은 옥수수가 되는 것이죠.

옥수수 수염이 갈색이라도 아직 마르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말랐으면 알맹이가 덜 여물었거나, 너무 딱딱하게 여물어 먹지는 못하고 씨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밭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보다 특별히 맛이 더 좋습니다. 흰 찰 옥수수에, 검은 찰 옥수수를 군데군데 섞어 심어놓았더니 옥수수 꽃이 필 무렵 서로 적당히 잘 섞여 너무 맛이 있는 옥수수가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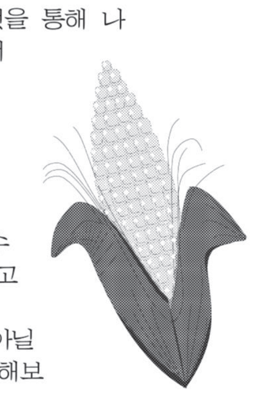
흰 옥수수는 알이 굵고 크기가 큰 반면 찰진 맛이 덜하고, 검은 옥수수는 찰진 맛은 좋은데 알이 작고 크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적당히 섞어 심으면 꽃가루가 적당히 섞여 흰 알맹이에 검은 알맹이가 적당히 섞인 정말 맛있는 옥수수가 나옵니다. 크기도 크면서 적당히 찰진 점박이 옥수수가 바로 그것이죠.

따기 시작한지 채 30분도 안되어 벌써 한 자루를 가득 땄습니다. 차 트렁크 안에 옥수수를 넣어 드렸더니 좋아하십니다. 큰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수수를 쪄 드셨는데 너무 맛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네요. 제가 농사지은 옥수수를 가지고 이웃과 친척이 나누어 먹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천상 농사꾼인가 봅니다.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돕고 자랐고, 결혼해 살면서도 친정부모와 함께 농사지으며 사는 것이 좋기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누고 또 받기도 하면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옥수수를 삶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올 여름은 옥수수 먹는 재미로 보내려고요.

이것이 사는 재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현대의 茶문화 ▮ 1. 차(茶)란 무엇인가?

식후나 여가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

현대의 茶문화에 대해 본지 조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차 전문점 자향을 운영하고 있는 황무연 대표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연재순서는 1. 차(茶)란 무엇인가? 2. 차와 건강 3. 차와 차문화 4. 한국의 차 5. 중국의 차 6. 각 국의 차와 생활 7. 운남 보이차 8. 차마고도 9. 차 우리는 방법 10. 차 마시는 방법 11. 각종 차의 칵테일 방법 12. 약이 되는 차 13. 차 마실 때 주의할 점 14. 각종 차의 보관방법 15. 차의 응용분야 16. 역사 속에서 바라본 차문화① 17. 역사 속에서 바라본 차 문화② 18. 역사 속에서 바라본 차 문화③ 19. 차의 경제적 가치 20. 차 학습을 위한 단계적 고찰방안 21. 자향차론(慈香茶論) 등이다. (편집자주)

차(茶)라 하는 것은 식후나 여가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를 총칭하여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차(茶)는 동백나무과(=산차화과 山茶花科)에 속하는 상록관엽수인 차나무(camellia Sinensis_L)의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따서 살청-유념-발효-건조 등의 가공을 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전통차는 차나무의 순(筍)과 잎을 곡우 4/20~입하 5/6사이에 채취하여(생산지역마다 채취시기는 서로 다름) 산화효소를 고온의 덖음 등으로 파괴하여 발효를 방지시킨 녹차류가 있으며, 인공 발효를 통하여 만든 홍차(紅茶:black tea), 반쯤 발효시킨 반 발효차(우롱차 烏龍茶등), 경살청 약유념으로 쪄서 압축하여 만든 후 발효차(보이차) 등이 있다.

차(茶)란 말의 세계적 전파기원은 중국의 복건성과 광동성에서 유래되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차가 광동성을 출발하여 육로를 거쳐 복건성의 무역항 온주 등을 통해 세계 각 국에 전파되었으므로 복건성의 발음인 'Tay'가 한국의 'Ta'발음에 영향을 주어 '차' 혹은 '다'로 부르게 되었다. 차(茶)라는 말이 현재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영국은 tea, 독일은 thee, 프랑스는 The로 중국은 cha (광동어계) 또는 Te (복건어계), 일본은 cha (복건어계)로 부르고 있고,인접 동남아 국가에서는 짜(ZZA)라고 발음하는 곳도 있다.

또 5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차 마시는 비율이 높은 중국 내에서는 민족별로 제각기 차를 칭하는 언어가 다른데, 묘족은 진을(zinl), 포의족은 사즈(xaz), 노래를 좋아하는 리수족은 로베이(lobei), 따리의 바이족은 줘드(zod)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세계 어디 가서나 차(cha)로 발음하면 통용된다.

차를 나타내는 한문 글자는 초두(艸)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목(木)변을 쓰기도 하나

초두로 적으면 당연히 차(茶)자가 되는데 그 글자는 650년대 당현종때의 개원문자음의(開元文字音義)에 나온다. 다경과 본초에는 대부분 다(茶)로 적혀 있다. 일찍 딴 것을 차(茶)라 하고 늦게 딴 것은 명(茗)이라 한다.

황무연
자향 대표

또 한편 차의 맛으로도 그 이름을 달리 불렀는데 '다경'에서는 그 맛이 단 것이 가요, 달지도 않고 쓴 것은 천이요, 마실 때 쓰고 목구멍이 단 것이 차(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이름도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차 '다(茶)'자와 차싹 '명(茗)'자만 사용하였다. 차 '다(茶)'는 차싹 '명(茗)'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문과 와당, 시문, 토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남아있다.

이는 '차'자와 '다'자가 전체 차의 대명사격으로 쓰여졌다는 증거이다. 이외에도 차를 가리키는 다른 말로는 불경에 나오는 '알가(閼伽)'라는 것이 있고, 영어로는 '티(TEA)'와 세계각국의 공용 학술어로 '데아(THEA)'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 중에 차(茶)라고 부르고 있는 인삼차, 율무차, 칡차, 유자차 등을 차라 할 수 있는가? 이들은 차대신 곡류나 식물의 열매 혹은 뿌리 등의 다른 재료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으므로 대용차(代用茶)라 부를 수 있다.

대용차는 차가 쇠퇴하기 시작한 조선중엽 임진왜란으로 궁핍해진 백성을 들이 재물로 바치는 차가 고가이므로 곡차(술) 또는 냉차(정한수)를 재물로 대신하도록 백성을 배려하는 조정의 선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찍이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이 탕·환·고(湯·丸·膏)와 같이 달인약물을 '차'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차(茶)는 세계의 음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차, 커피, 코코아는 3대 기호음료로써 세계 각 국에서 널리 음용 되고 있다. 문의:011-9750-1883